

문헌정보학과 대학생을 위한 독서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Student Reading Clubs for the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임 성 관(Seong-Gwan Lim)*

<목 차>

I. 서론	2. 모집 공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독서회 신청자
2. 연구문제 및 방법	4.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
II. 이론적 배경	IV. 대학생 독서회 운영
1. 대학생과 독서	1. 1회 :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 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2. 독서회	2. 2회 : 1차 발제 및 토론
3. 선행연구	3. 3회 :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III. 대학생 독서회 조직	V. 결론 및 제언
1. 독서회 조직 동기	

초 록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달단계상의 과도기로,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모에게 의존을 하는 등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하고 직업 탐색을 통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하는 등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또한 높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시기와 마찬가지로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전통적 가치를 배우고 현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주제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성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독서회 조직, 독서회 운영

ABSTRACT

The times when students are university age is a time or period of great transition and individual growth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Students are still semidependent upon their parents both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However, it is also a time for growing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such as studying on their own, finding effective approaches for job searches, and realizing or becoming aware of their future places in society. Therefore, a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t can be a very confusing time, especially with an individual's self-identity. If students are able to read pertinent subject matter books, talk with people and expand their scope of recognition, they should be able to better grasp traditional values and current society viewpoints maturity levels and confidence will be greatly enhanced. In this study, I propose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necessary methods for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student reading clubs, focusing specifically on case studies with the whole countr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aid students in this critical time in their young lives.

Keyword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brary, University student, Reading club, Organization of reading club, Management of reading club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9년 5월 19일 •최초심사: 2019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1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261-283,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6.2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의 변화는 대학교에도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을, 저출산으로부터 이어진 학령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 감소는 학습 수혜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합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학교 숫자는 340개이고 학생 수는 2,719,970명이다. 이 결과는 2017년보다 대학교 숫자에서는 1개가 늘었고, 학생 수에서는 약 4만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2020학년도에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52만여 명으로, 이미 2019학년도에 비해 6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사상 처음으로 대학입학정원이 신입생 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각 대학교에서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적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약 천 년 전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설립된 후, 유럽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존재는 현실과 동떨어져 학문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었고, 이를 두고 상아탑이라고 비꼬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한마디로 대학에게 상아탑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이중호, 2019).

마침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들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종으로 나아가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한 원인도 있지만, 대학이 학생들에게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의 마지막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변혁을 꾀해야 하는 현 시점을 기회로 삼아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독서가 최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독서는 대학생들에게 자아를 성찰하고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서를 미덕으로 여겨왔으며, 이런 전통은 오늘날

까지 다방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정책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서는 인식론적·심리학적·생리학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이정춘 2000, 13)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사회 발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도서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등 독서환경을 개선해,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갖고 독서를 시작해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장차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독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에게도 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구성된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운영 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 활동 및 독서회 관련 선행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조직 및 운영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과 독서

독서는 지식을 얻는 대표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심화된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 대학생과 독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서 능력은 많이 저하되어 있으며, 절대적인 독서량 또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실시한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의 일반도서(교과서·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를 제외한 종이책)를 읽은 사람들의 비율, 즉 연평균 독서율은 성인 59.9%, 초·중·고 학생 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년에 1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6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65.3%에 서도 5.4%가 줄어들었으며, 2년 주기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생은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포함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도 8.3권으로 하락하였다(김경진 2019, 14).

오늘날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학 이후 급격히 달라진 환경과 함께 학업이수, 학점관리, 한층 복잡해진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부담감, 경제적인 문제,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단절 등등이 그것이다.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이런 극심한 변화 속에서 불안, 우울감, 폭력, 자살 등에 이르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인생 발달의 단계로 볼 때, 청소년 후반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한다. 이런 대학생들이 지속적인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에게는 이 시기가 위기의 시대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자신의 존재감(self-definition)을 찾아 나서야 한다.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처럼 위기에 처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변화된 환경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적응력을 키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최상민 2016, 183).

대학생활에 있어 왕성한 독서행위는 필수사항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그들의 본분이자 절체절명의 실천 과제이다. 시간과 정력과 독서 여건이 잘 보장된 대학시절에 체계적이고 풍부한 독서를 해두면 다음 단계의 인생과 사회생활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되며, 어떤 개인적 사회적 난제나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체득하게 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 거의 예외 없이 대학생활의 보람과 졸업 후의 승부는 얼마나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를 했느냐에 좌우된다. 대학생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 성공적인 삶은 폭넓은 교양 함양과 인류 공통의 지식과 지혜를 최대한 섭취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줄 안다(박정길 2006, 7).

2. 독서회

독서회나 독서클럽이라 함은 작가, 작품 또는 특정 문제를 주제로 하여 모인 사람들이, 집단 독서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으로부터 그들 상호간의 사고력을 높이고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소위 집단 역학에 기초를 둔 모임을 말한다(손정표 2003, 193).

독서는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학문적 성취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우세하게 광범위한 기능을 간접 경험하게 하여 사회를 진보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Gray 1990, 41-42). 그러나 개인적인 조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치해 두면 독서생활이 태만해지기 쉽고, 독서 방법도 자신의 생각에만 얽매이게 되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독서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서회이다(장인식 1971, 156). 또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다른 회원들과 비교하여 더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성인들이 많을 때 사회가 바람직하게 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의 방법으로 독서회를 조직하여 활동시키고 있다(Davis 1991, 35-36).

다음은 독서회를 조직하여 운영했을 때 참여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강복환 1999, 237).

첫째,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자기의 흥미를 알고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으며, 아직까지 느끼지 못한 흥미의 영역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독서를 계획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독서 후에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독서할 때 주의해서 하며 이해가 정확하다.

넷째, 자기의 감상을 이야기하도록 약속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는 태도와 능력이 길러진다.

다섯째, 독서회 활동에 참가한다는 의식이 독서의 동기를 높이고 개별적으로 독서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음으로써 독서 활동의 적부를 평가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게 된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서로 보충하고 시정함으로써 이해가 더 철저히 된다.

여덟째, 독서회 활동에 협력함으로써 자치성과 우호성 등의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가 길러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8년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독서 동아리는 4,094개였고 참가자 수는 137,732명이었다. 즉, 독서 동아리는 1개 도서관 당 평균 3.9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수는 132명이었다. 다음의 <표 1>은 시도별 독서 동아리 수와 참가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시도별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 수 및 참가자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참가자 수(명)
서울	1,117	22,519
부산	243	11,187
대구	139	2,786
인천	165	5,435
광주	84	2,182
대전	79	2,585
울산	26	1,357
세종	11	108
경기	842	48,865
강원	252	8,742
충북	120	3,539
충남	150	3,215
전북	294	3,046
전남	230	12,325
경북	108	3,048
경남	189	5,669
제주	45	1,124
전국	4,094	137,73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이어서 다음의 <표 2>는 시도별 공공도서관 1관 당 독서 동아리 수와 참가자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시도별 공공도서관 1관 당 독서 동아리 수 및 참가자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참가자 수(명)
서울	7.0	141
부산	6.1	280
대구	3.9	77
인천	3.4	113
광주	3.7	95
대전	3.3	108
울산	1.4	75
세종	2.2	22
경기	3.4	195
강원	4.5	156
충북	2.7	79
충남	2.5	54
전북	5.1	53
전남	3.4	184
경북	1.7	47
경남	2.8	85
제주	2.1	54
전국	3.9	132

또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독서동아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독서 동아리는 2019년 5월 18일 기준 1,733개이다. 다음의 <표 3>은 독서동아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별 독서 동아리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지역별 독서 동아리 수

지역	동아리 수(개)
서울	613
부산	103
대구	94
인천	102
광주	50
대전	32
울산	47
세종	7
경기	93
강원	94
충북	86
충남	54
전북	108
전남	63

경북	57
경남	114
제주	16
전국	1,733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독서 동아리 중에 대학생들만을 위한 독서회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만을 위한 독서회는 각 대학의 학과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모임일 것이다.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독서회(독서동아리, 독서클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대학생 독서회에 관한 선행연구만 고찰하고자 했으나 발표된 논문이 적어, 대상을 구분 짓지 않고 독서회 조직 및 운영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과 대학생 독서 관련 논문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강복환(1999)은 ‘소집단 독서회의 운영에 관한 소고’ 연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독서 환경 조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독서회 조직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집단을 통한 독서 토론회의 운영 방법과 도서의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김승환(2002)은 ‘독서캠프 활동이 대학생 중심의 독서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대학생 중심의 독서회 회원들이 독서캠프 활동에 참여한 결과 독서캠프 활동에 경험이 있는 졸업생들과도 연관되어 독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하였다. 또한 회원들 간의 독서회 운영에 대한 걱려는 독서캠프 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독서캠프라고 제안하였다.

김현경(2013)은 ‘전문대학생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의 필요성과 실제 : 경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에서 독서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대학생들의 도서관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에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도 탈락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인성교육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운영 전 단계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클럽을 위한 도서선정과 교수법 및 토론 쟁점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과정 단계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과 토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독서클럽 운영 후 과정에서는 우수클럽 시상과 페스티벌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심보경과 윤인선(2016)은 ‘대학생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북클럽 활용 교수법’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한림대학교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북클럽 신청 동기, 주제 선정 및 도서목록 선정 과정, 독서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북클럽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수경(2017)은 ‘대학도서관을 통한 대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 실천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서에 대한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 공동체의 한 유형인 독서토론 클럽을 제안하였다. 실천 공동체는 네덜란드 공공도서관과 국내 대학도서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연결자(connector), 가이드(guide), 선생님(teacher), 대화 상대(conversation partner)로서 사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독서회 조직과 운영, 대학생들과 독서 활동을 주제로 한 것들이다. 비록 대상이 다르고 선정 자료와 활동 방법이 달랐지만, 고찰 결과 독서 활동은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의 독서는 사회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전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대학에서 실천이 되면,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이거나 자퇴 등을 통한 탈락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대학생 독서회 조직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조직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17일에 모집이 완료 되어, 4월 6일 토요일부터 매월 2회씩 운영되고 있는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항목은 독서회 조직 동기, 모집 공고, 독서회 신청자,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의 순서이다.

1. 독서회 조직 동기

본 연구자가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조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2018년도이다.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전국의 도서관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서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렵다. 따라서 문헌정보학도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현장 사서에게 필요한 독서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독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 모집 공고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는 2019년 3월 11일 도서관 메일링 리스트에 올렸다. 다음의 <표 4>는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에 포함된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대학생 독서회 모집 공고 항목과 내용

항목	내용
참여 대상	전국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00명 기타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중인 학생들은 가능하지만, 전문대학, 사서교육원 및 학점은행 과정 학생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 주십시오. 독서회 회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4월 첫 모임에 오실 때 재학증명서를 제출 바랍니다.
모임 계획	4월부터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2-5시, 월 2회 각 3시간 씩 기타 : 매월 매회 참여가 가능한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월 1회만 참여가 가능한 분들, 지각이나 조퇴 등 전체 시간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 장소	H독서치료연구소 기타 : 참여 인원과 거주 지역에 따라 장소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참여자를 고려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내용	독서 후 토론과 토의, 독서 분야 강좌 수강을 통한 현장 역량 강화, 도서관 현장 및 출판에 대한 이해 등
참가 비용	없음 기타 : 단 향후 희망자에 한해 독서 분야 자격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별도의 참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이라는 제목을 달아 이메일 *****@hanmail.net로 3월 17일 일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역시 이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에 정리한 모집 공고에는 ‘참여 대상’과 ‘모임 계획’, ‘모임 장소’와 ‘내용’, ‘참가 비용’과 ‘신청 방법’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 다만 참여 인원과 거주 지역에 따라 모임 장소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독서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독서회 모임이 자율적 참여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 개개인마다의 욕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별 욕구가 반영되었을 때 자발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여, 첫 모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자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있었다. 따라서 운영 계획을 미리 수립해 고지할 것인가, 아니면 참여자들과 함께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독서회 신청자

대학생 독서회 모집은 2019년 3월 11일에 시작해 3월 19일에 마감을 했다. 그 결과 총 11명이 모집이 되었다. 다음의 <표 5>는 모집 공고와 함께 제시한 독서회 참여 신청서 양식이다.

<표 5>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서 양식

1) 재학 중인 대학교 / 학년			
2) 현재 거주 지역			
3) 성별 / 성명 / 증명사진	성별	성명	증명사진
4) 휴대전화 번호			
5) 이메일 주소			
6) 졸업 후 희망 진로			
7)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표 5>에 제시한 신청서 양식에는 재학 중인 대학교와 학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성별 및 성명, 그리고 사진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졸업 후 희망 진로와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도 적도록 했다.

이어서 다음의 <표 6>은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들의 소속 대학교와 이름, 학년, 성별, 거주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학년	성별	거주지
1	K대학교	박**	3	여	경기 화성시
2	K대학교	서**	2	남	경기 군포시
3	K대학교	한**	2	여	경기 수원시
4	N대학교	김**	3	남	충남 아산시
5	N대학교	오**	3	여	충남 천안시
6	N대학교	이**	3	여	경기 안양시
7	N대학교	조**	3	남	세종특별자치시
8	N대학교	조**	3	여	경기 용인시
9	N대학교	주**	4	여	충남 천안시
10	N대학교	홍**	3	남	충남 천안시
11	I대학교	유**	3	여	인천광역시

<표 6>에 정리한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는 총 11명이다. 소속 대학교는 K, N, I 세 곳이며 모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학년 구성은 3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명, 4학년이 1명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7명, 남자가 4명이며, 거주지는 경기도가 5명, 충남이 4명,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1명이었다.

다음의 <표 7>은 각 학생들의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대학생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
1	K대학교	박**	독서 분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싶어서
2	K대학교	서**	전국의 다른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3	K대학교	한**	독서의 지평을 넓히고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를 위해
4	N대학교	김**	함께 읽고 공유하기 위해
5	N대학교	오**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
6	N대학교	이**	흔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
7	N대학교	조**	주기적인 독서를 원하고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8	N대학교	조**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및 배움을 위해
9	N대학교	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알고 싶고 각 직업군을 만나보고 싶어서
10	N대학교	홍**	사서가 되기 위한 독서 전문성 배양을 위해
11	I대학교	유**	체계적인 독서 및 타 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표 7>에 정리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의 독서회 참여 신청 이유는 ‘독서 역량 강화’와 ‘타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미 독서를 실천하고 있으며, 독서회를 통해 인적 교류는 물론 사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의 <표 8>은 독서회 신청자들의 대학 졸업 후 희망 진로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졸업 후 희망 진로
1	K대학교	박**	사서
2	K대학교	서**	사서 혹은 출판 관련
3	K대학교	한**	사서 공무원
4	N대학교	김**	사서
5	N대학교	오**	사서 공무원(교육청 소속)
6	N대학교	이**	사서교사
7	N대학교	조**	사서
8	N대학교	조**	대학원 진학
9	N대학교	주**	사서 혹은 출판사, 서점
10	N대학교	홍**	대학원 진학 후 만화 도서관 관련 공부 및 연구 희망
11	I대학교	유**	사서(공공도서관)

<표 8>에 정리된 내용을 통해 독서회 참여를 신청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은 모두 사서 직(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서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출판사나 서점으로 진출해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4.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

대학생 독서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동안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24회 운영될 계획이다. 다음의 <표 9>는 1년 동안의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

월	주	내용
4월	1주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3주	1차 발제 및 토론
5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3주	2차 발제 및 토론
6월	1주	3차 발제 및 토론
	4주	현장 탐방 1 - 서울국제도서전 관람(feat. 별마당도서관)
7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2 - 공공도서관 사서
	3주	4차 발제 및 토론
8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3 - 학교도서관 사서
	3주	5차 발제 및 토론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9월	1주	현장 탐방 2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feat. 규장각)
	3주	6차 발제 및 토론
10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4 -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3주	7차 발제 및 토론
11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5 - 출판사 대표
	3주	8차 발제 및 토론
12월	1주	9차 발제 및 토론
	3주	현장 탐방 3 - 파주 출판 도시
1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6 - 작가
	3주	10차 발제 및 토론
2월	1주	현장 전문가 특강 7 - 서점 대표
	3주	11차 발제 및 토론
3월	1주	현장 탐방 4 - 경의선 책거리
	3주	종합 토론

<표 9>에 제시한 대학생 독서회 운영 계획은 모임 첫 날 참여자들과 함께 협의 후 완성한 것으로, ‘독서 토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 토론은 독서회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장르나 형태, 내용이나 분량에 관계없이 참여 학생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은 작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멀티미디어 리터러시(multimedia literacy)가 필요한 현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 도서가 아닌 형태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학과 공부와 과제, 시험,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쁜 일상을 고려해 한 달에 한 권을 지정해 과제 독서 후 해당 작품을 제안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전문가 특강은 독서회 참여 대학생들이 만나보고 싶다고 한 독서 및 도서관 관련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모셔 각 업무의 특성, 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 보람을 느끼는 점과 고충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람 책(human book)처럼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설정이다. 현장 전문가는 독서 분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 한국도서관협회 직원, 출판사 및 서점 대표, 작가 등 도서관이나 독서, 책과 관련이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

마지막으로 현장 탐방은 독서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취지에 포함된 활동으로, 방문할 곳으로는 서울국제도서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규장각, 파주 출판 도시, 경의선 책거리가 선택되었다.

다음의 <표 10>은 참여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싶다고 제안한 작품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0> 독서회 토론 작품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토론 제안 작품	매체 유형	분야
1	K대학교	박**	변신	도서	문학
2	K대학교	서**	질문의 7가지 힘	도서	사회학
3	K대학교	한**	육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도서	희곡

4	N대학교	김**	앵무새 죽이기	도서	문학
5	N대학교	오**	페르세폴리스 1-2	도서	만화
6	N대학교	이**	마지막 잎새	도서	문학
7	N대학교	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도서	윤리학
8	N대학교	조**	웃는 남자	도서	문학
9	N대학교	주**	비밀의 화원	도서	문학
10	N대학교	홍**	Who am I : tale of Dorothy, Headliner	게임	스토리 전개
11	I대학교	유**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영상	다큐멘터리

<표 10>에 정리한 독서회에서 토론하고 싶은 작품들을 보면 문학 분야 도서가 5권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윤리학과 희곡, 사회학 분야의 도서가 각각 1권씩 더 있으므로 도서 매체가 총 8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만화 분야 도서가 1종 2권, 스토리 전개 게임이 2종, 다큐멘터리 영상이 1편이다. 독서회는 참여자의 자발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토론 작품 선정 과정은 참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가 전적으로 존중되었다. 따라서 비도서가 선정될 수도 있고 주제가 편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다양한 분야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면 총류(000)에서부터 역사(900)까지 주제를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IV. 대학생 독서회 운영

2019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는 총 4번 운영이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1회 :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1회는 독서회 주최자와 신청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따라서 서로의 이름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명패를 준비했고, 모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활용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독서회 조직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고, 참여 학생들 각자의 소개를 나누었다. 이어서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을 조사했으며,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나 여러 작품 중 고민을 하고 있다면 차후 선정해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모집 공고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지만 성실한 참여 유도를 위해 24회 중 20회 이상 참석하면 H독서치료연구소에서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는 사항을 추가로 공지했다.

다음의 <표 11>은 독서회 1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1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오리엔테이션, 소개 나누기, 함께 토론하고 싶은 작품 나누기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서**	가까운 곳에서 모임 수 있어서 좋고, 항상 혼자 독서를 하고 말았는데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많이 배울 것 같다.
	N대학교 주**	실제로 모임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만나게 되어 반갑다.
	I대학교 유**	어떤 계획으로 운영되는 모임인지 몰랐고 친구도 그런 곳에 왜 가냐고 말해서 망설였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의의	1회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사점	적정 기회가 주어지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넘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열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2회 : 1차 발제 및 토론

1차 발제 및 토론은 K대학교의 한** 학생이 선정한 도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바탕으로 실행이 되었다. 발제자는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이야기에 사용된 상징,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가정적 배경을 정리해 발표한 뒤 먼저 감상을 나눈 뒤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발제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12>는 발제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 발제 과정과 내용

서지 사항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 테네시 윌리엄스 지음 / 1947년 발간
줄거리	몰락한 미국 남부의 백인 여성 블랑쉬가 여동생 스텔라를 찾아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
등장인물	블랑쉬 : 회다는 뜻(전 남편 이름은 그레이),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며, 예민하고, 고통을 욕망으로 해결하며 현실을 회피하려고 함 스텔라 : 현실에 적응적임, 남편의 폭력을 눈 감고 있음 스탠리 : 돌과 석탄을 의미, 물질적이고 마초적임
상징	색깔 *과랑 : 우울하고 퇴폐적, 뉴올리언스의 빈곤을 상징 *조명 갖의 색 : 자신을 숨기고 싶어함 *옷 : 블랑쉬의 겉옷과 속옷, 스텔라의 옷 포커놀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사회, 블랑쉬와 스텔라의 대립 관계를 상징 제목 *욕망→묘지→극락으로 이어지는 전차는 욕망을 가진 누군가의 삶을 의미
작품 배경	시대 *전후 시대, 남부 지역의 몰락, 상층된 삶. *청교도적 가치관 VS 전쟁으로 인한 이익

	작가 *가부장적 아버지와 예민한 어머니, 정신 병력이 있는 누나 속에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동성에 자였음
감상 나누기 및 토론 발제	감상 나누기 *작품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 나누기 토론 *블랑쉬는 스스로의 본질을 외면했던 것인가 무지했던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독서회에서 토론할 작품이 지정되면 참여자들은 반드시 그 작품을 읽고 와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완독을 하지 못한 채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표 12>에 제시한 과정과 내용에 따라 발제를 하면, 책을 읽지 못한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줄거리를 파악한 뒤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독서회에서의 토론은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했느냐, 지정된 작품을 완독했느냐, 발제자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만약 발제가 빈약한 상황이라면 참여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현 시대나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음의 <표 13>과 <표 14>는 추가 발제와 그에 대한 대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3> 추가 발제 및 발언 내용 1

발제	욕망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발언 1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채우면 만족을 할 테니 바람직하다.
발언 2 (오**)	사람들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욕망을 다 버릴 수도 없다. 따라서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추구하는 욕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발언 3 (조**)	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떨 때에는 법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언 4 (홍**)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추가 발제 및 발언 내용 2

발제	여러분들의 욕망은 무엇인가?
발언 1 (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다.
발언 2 (김**)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발언 3 (이**)	나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발언 4 (유**)	우선 중간고사를 잘 보고 싶다. 대학도 제 때에 졸업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서 다니고 싶다.

다음의 <표 15>는 독서회 2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2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1차 발제 및 토론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한**	책을 추천하고 발제한 사람으로서 너무 어렵고 지루한 작품을 고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했다.
	N대학교 조**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망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추가 발제를 통해 내 욕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N대학교 홍**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읽으면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책과 영화 모두 나와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함께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의의	대학생들 스스로 발제 및 토론을 하면서 2시간 이상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작품 해석이나 발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 문학작품의 경우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각색된 작품들을 함께 선정해 비교 및 분석 작업을 해보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구할 수 있었다.	
시사점	대학생들 스스로 추천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제의 기회 제공을 통해 독서회 참여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회 :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3회 모임은 현장 전문가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학생 독서회 모임의 주최자였던 연구자가 독서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진행했다. 특강은 90분 이내로 종료했으며, 잔여 시간 동안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의 <표 16>은 전문가 특강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현장 전문가 특강 내용

특강 주제	독서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
소주제 1	전문가란?
소주제 2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 :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실적, 수상 경력
소주제 3	독서 활용(활동) 분야 : 독서 교육, 독서지도, 독서상담, 독서코칭, 독서클리닉, 독서치료
소주제 5	독서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
소주제 6	독서 분야 전문가의 강점과 약점
소주제 7	향후 목표
소주제 8	질문과 답변

<표 16>에 정리한 내용은 현장 전문가 특강에서 다룬 주제들로, 독서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과 강화 과정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될 전문가 특강의 선례로 삼을 수 있다. 이어서 다음의 <표 17>은 대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에게 했던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7> 대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에게 한 질문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현장 전문가에게 한 질문 내용
1	K대학교	한**	독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2	N대학교	오**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3	N대학교	주**	독서 분야 전문가로 강의 및 저술 등 여러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어떻게 해내시나요?
4	N대학교	홍**	저는 대학원에서 만화 관련 자료 및 도서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5	I대학교	유**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독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표 17>에 정리한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독서 분야 전문가가 되는 과정과 수입, 직업으로의 선택 여부, 문헌정보학 대학원 진학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로의 진출을 꿈꾸기 때문에 현실적 측면의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8>은 독서회 3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8> 3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현장 전문가 특강 1 - 독서 전문가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7명	
참여 소감	K대학교 박**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일은 역시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N대학교 오**	도서관 사서에게도 독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N대학교 이**	대학교 생활만으로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원 공부, 자격증 취득, 현장 경험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가 편하다는 것을 느꼈다.
의의	대학생들이 도서관 및 독서 관련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획득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시사점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이 독서토론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사서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독서회 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4회 : 2차 발제 및 토론

2차 발제 및 토론은 N대학교의 조** 학생이 선정한 도서 '웃는 남자'를 바탕으로 실행이 되었다. '웃는 남자'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출판사에 따라 두 권 혹은 한 권으로 출간이 되었을 만큼 분량이 많다. 따라서 완독을 한 학생은 2명뿐이었다. 따라서 발제자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와 뮤지컬을 준비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장면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내용 이해를 도왔다. 다음의 <표 19>는 발제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발제 과정과 내용

서지 사항	웃는 남자 / 빅토르 위고 지음 / 1869년 발표
완독 여부 확인	완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타 매체 감상	주인공 그윈플레이 우르수스를 만나는 장면과, 성장해 데아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장면을 영화와 뮤지컬을 통해 함께 시청
매체별 차이 찾기	도서, 영화, 뮤지컬로 발표된 작품이 주는 차이가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발표
토론 발제	토론 *그윈플레이 공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선택인가? *권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2차 토론에는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도서와 영화, 뮤지컬로 모두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는 1차 발제 후 나눈 소감을 반영한 시도이자, 을 모두 준비해 같은 장면을 다시 및 토론 과정과 내용은 <표 12>의 내용과 다르다. 왜냐하면 각 작품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20>은 독서회 4회 모임을 통해 도출한 의의와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 20〉 4회 모임의 의의 및 시사점

목표	2차 발제 및 토론	
참석	주최자 1명, 대학생 10명	
참여 소감	K대학교 서**	이런 기회에 긴 작품을 읽어봐야 하는데 학교 과제 등의 이유로 앞부분만 조금 읽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남긴 리뷰를 읽어보고 왔다. 뮤지컬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거라도 찾아보고 올 걸 그랬다.
	N대학교 김**	홍**가 알려주어서 뮤지컬을 보고 왔다. 그런데 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역시 책을 다 읽고 오지 못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 토론에 참여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I대학교 유**	두 권으로 나뉜 책을 선택했는데 1권까지만 읽고 2권은 읽지 못한 채 와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 사람,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서 지루했지만, 2권까지 완독할 예정이다.
의의	총 11번에 걸쳐 실시될 독서토론 중 가장 긴 분량 ¹⁾ 의 문학작품이 선정된 시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완독 여부와 토론 참여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시사점	본 독서회에서의 독서토론은 한 달에 한 번 실시가 되며, 해당 문학작품도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분량이 많으면 대학생들이 완독을 하지 못했고,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 읽어 오기에 부담이 없는 분량의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출석 현황

모임의 핵심은 구성원들이 모두 출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회 역시 모든 대학생들이 빠짐없이 출석을 해야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다. 다음의 <표 21>은 4회까지의 출석 현황이다.

1) 더클래식 세계문학 스페셜 에디션(1-3권 합본)은 904페이지, 열린책들의 상·하 권은 각각 469페이지와 946페이지이다.

〈표 21〉 대학생 독서회 출석 현황 (출석 ○, 결석 /)

순번	소속 대학교	이름	4/6	4/20	5/4	5/18
1	K대학교	박**	○	/	○	○
2	K대학교	서**	○	○	/	○
3	K대학교	한**	○	○	/	○
4	N대학교	김**	○	○	○	○
5	N대학교	오**	○	○	○	○
6	N대학교	이**	○	○	○	○
7	N대학교	조**	/	○	/	/
8	N대학교	조**	○	○	○	○
9	N대학교	주**	○	○	/	○
10	N대학교	홍**	○	○	○	○
11	I대학교	유**	○	○	○	○

〈표 21〉에 정리한 4회까지의 출석 현황을 보면 6명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번 결석한 학생이 4명, 3번 결석한 학생이 1명 있다. 이 중 3번 결석한 학생은 병환으로 인해 입원을 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며, 1번 결석한 학생들의 사유는 아버지의 병환, 본인의 몸이 아파서, 아르바이트 시간을 바꾸지 못해서 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 독서회 모임에 출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병환이라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가항력적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정해진 일정을 고려해 조율한 뒤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독서는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생산하는 원천이요, 개인이나 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인간적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누구나 자기 계발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독서를 생활화하거나 실천하는데 열의를 쏟아부어야 한다(손정표 1999, 116).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독서를 등한시하고 있어, 자기 발전도 꾀하지 못하고 사회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차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독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에게도 독서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독서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과 운영 과정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의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국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독서회 조직의 측면에서는 조직하게 된 동기, 모집 공고의 기간과 내용, 독서회 신청자, 독서회 운영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 신청자는 총 11명이었고 3학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서회 신청 이유는 ‘독서 역량 강화’와 ‘타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때문이었다. 이어서 독서회 운영 기간은 총 1년으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였고, 매월 2회 총 24회 동안 독서토론, 현장 전문가 특강, 현장 탐방을 실천할 계획이었다. 운영 내용은 1회 때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각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의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서 대학생 대상 독서회 운영의 측면에서는 2019년 4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4회 동안 실천된 각 회차 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적정 기회가 주어지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회가 조직 및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은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 스스로 추천한 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제의 기회 제공을 통해 독서회 참여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을 높여줄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이 독서토론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사서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독서회 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독서회에서의 독서토론은 한 달에 한 번 실시가 되며, 해당 문학작품도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분량이 많으면 대학생들이 완독을 하지 못했고,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두 읽어 오기에 부담이 없는 분량의 작품을 선정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차후 대학생 대상의 독서회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 하는데 참고가 될 제언이다.

첫째,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며 향후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은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교 및 대학도서관에서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서회를 조직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독서회는 참여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과 대학생 독서회도 참여 대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추천하고 발제 및 토론까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참여 의지와 책임감을 동시에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함께 읽고 토론할 작품은 문학 분야의 도서로 한정짓기 보다는 멀티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주제 분야를 두루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과 공부와 과제, 시험,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을 협의해 결정할 필요도 있다.

셋째, 대부분의 독서회에서는 연중 한 번이라도 선정된 문학작품의 저자를 초청해 이야기

나누는 행사를 계획하는데, 문헌정보학과 대학생들에게는 도서관 및 독서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현장을 직접 탐방해 보는 경험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장도 펼쳐주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복환. 1999. 소집단 독서회의 운영에 관한 소고. 『한국초등국어교육』, 15(1): 231-249.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인용 2019. 5. 17].
- 김경진. 2019. 『대학생의 독서활동이 창의-융합역량에 미치는 영향 : 자기성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청소년전공.
- 김승환. 2002. 독서캠프 활동이 대학생 중심의 독서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2): 25-46.
- 김현경. 2013. 전문대학생을 위한 독서클럽 운영의 필요성과 실제 : 경민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2013년 여름호(통권 제70호): 21-30.
- 독서동아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readinggroup.or.kr>>. [인용 2019. 5. 18].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정길. 2006.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3-22.
- 손정표. 1999.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 손정표. 2003. 『신독서지도방법론』. 수정증보판. 대구: 태일사.
- 심보경, 윤인선. 2016. 대학생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북클럽 활용 교수법. 『언어학 연구』, 39: 189-210.
- 이정춘. 2000. 『미디어 환경과 독서교육』. 서울: 이진출판사.
- 이종호. 2019.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 살기'. 『프레시안』. 5월 17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2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인용 2019. 5. 17].
- 임수경. 2017. 대학도서관을 통한 대학생 독서 활성화 방안 연구 : 실천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65-71.
- 장인식. 1971. 『공공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상민. 2016. 독서토론 활동을 통한 대학생의 자기 성찰적 인성 개발. 『한국리더러시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83-196.

- Denise M. Davis. 1991. Adult literacy programs : Toward equality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Journal of Reading* 35(1): 35-36.
- Williams S. Gray. 1990. 독서의 과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측면. 김효정 역. 『도서관』, 45(3): 41-4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Sang-Min. 2016.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 Development based on Reading Debate." *Korean Association for Literacy*, 183-196.
- Jang, In-Sik. 1971. *Public Libra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ang, Bok-Whan. 1999.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mall Group Reading Conference."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15(1): 231-249.
- Kim, Hyun-Kyung. 2013. "Necessity and Practice of Reading Club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Digital Library*, 70: 21-30.
- Kim, Kyung-Jin.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fle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ading activity and Creativity convergence competency in university students*. M.A. thesis. Major in Youth Studies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Studie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Kim, Seung-Hoan. 2002. "A Study of the Effects of Reading Circle Management with College Students on the Reading Camp Activ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2): 25-46.
- Lee, Jeong-Chun. 2000. *Media Environment and Reading Education*. Seoul: Ijin Publisher.
- Lee, Jong-Ho. 2019. University, Live Together with District Community. 『Pressian』.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25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cited by 2019. 5. 17].
- Lim, Su-Kyung. 2017.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Reading activation in the University Libraries : A Case Study of Communities of Practic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65-7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2018 Public Library Statistical Research Result Repor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omepage. <<http://kosis.kr/index/index.do>>.

[cited by 2019. 5. 17].

Park, Jeong-Gill. 2006. "A Study on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iversity Students Poor Readin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3-22.

Reading Club Support Center Homepage <<http://readinggroup.or.kr>>. [cited by 2019. 5. 18]

Shim, Bo-Kyung and Yoon, In-Sun. 2016. "A College Student to Improve the Reading Debate Book Club Use Teaching Methods." *Studies in Linguistics*, 39: 189-210.

Son, Jeong-Pyo. 1999. *New Methodology of Reading Guidance*. Daegu: Taeilsa.

Son, Jeong-Pyo. 2003. *New Methodology of Reading Guidance*. Revised edition. Daegu: Taeilsa.